

# 완주군, 시내버스 노선개편

### 대중교통 주민공감위 개최... 단계별 추진·주민불편 최소화 우선

‘전주 시내버스 노선개편 실행안’이 내년 2월 20일부터 전주시와 완주군의 삼례, 봉동, 이서 등 우선시행지역에서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완주군이 마을별 노선도, 환승체계 등 이용방법 홍보에 심혈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 내년 7월까지 터미널 및 환승센터에 ‘대중교통 행복추진단’과 현장 교통도우미를 구성·배치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에서 수렴된 주민여론이 최종 노선개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완주군은 이날 13일 ‘완주군 대중교통 주민공감위원회(위원장 김홍희 완주부군수)’ 회의를 열고, 최근 전주시와 완주군, 시내버스공동관리위원회, 버스업체 5개사, 노동조합 등이 합의

한 시내버스 노선개편(지간선제 포함) 실행안에 대해 설명·논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노선개편 실행안을 보면, 완주군 전체 지역과 전주시를 연결하는 노선의 경우 현행유지 39개, 조정 22개, 폐지 21개, 신설 14개 등 전체의 52%가 조정됐다. 이에 완주~전주 연결노선은 현행 82개에서 7개 줄어든 75개로 확정됐다.

특히 우선시행지역인 완주군 삼례읍의 경우, 지역 내 노선이 현행 유지 6개, 조정 4개, 폐지 10개, 신설 6개 등 16개 노선으로 변경됐다.

또한 봉동읍은 현행 10개, 조정 4개 등 14개 노선으로, 이서면은 조정 6개, 폐지 11개, 신설 8개 등 14개 노선으로 각각 개편이 이뤄졌다.

우선시행지역 외의 10개 읍면은 중복 및 굴곡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현행대로 유지됐다.

이 밖에 신설되는 노선의 버스 번호 체계는 폐지 노선의 번호 3자리 중 2자리를 최대한 반영, 주민혼선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무료 환승에 따른 재정지원의 경우, 삼례지역(삼례터미널 환승)은 완주군에서, 이서지역(전주대 환승)은 전주시에서 각각 부담할 계획이다.

완주군은 이 같은 노선개편 실행안을 대중교통 공감위원회 위원(22명)에게 설명하고, 앞으로 성공적인 노선개편 시행 및 정착을 위해 단계별로 대책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회 개최 지역문화 융합된 프로그램 운영 ‘호평’

### 주민 등 100여명 참석 발전적 방향 모색 취지 최병길 교수 평가보고



14일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 및 열린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이대석 군의원 등 관계자들이 평가보고를 하고 있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 및 열린 토론회가 14일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관련 공무원들과 (사)무주반딧불축제제정위원회(위원장 이성만) 관계자들, 그리고 축제 전문가들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주읍 전통문화회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평가보고 및 토론회는 제20회 축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 발전적 방향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영상물 시청과 평가보고, 토론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호원대학교 최병길 교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평가보고를 통해 “자연의 빛, 생명의 빛, 미래의 빛이라는 주제와 지역문화가 융합된 프로그램 운영이 돋보였다”며 “제정위원회를 주축으로 유관기관,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잘 이뤄졌던 만큼 효율적인 협업을 이어가기 위해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의 눈에 띄는 변화에 대해 △반딧불이 서식 환경 보호활동, △무주스토리 발굴과 시연, △“무주아리랑” 등 무주만의 공연활동 강화, △“반디한집” 등 읍면별 대표 음식을 기반으로 한 향

토음식관 운영, △축제장 공원화, △휴게공간의 확대 및 운영, △20돌맞이 축제 역사 전시관 조성, △문화교류전 및 팸투어 등 외국인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보강 등을 꼽았다.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농·특산물 판매장터의 경우 특화거리로서 이미지 연출이 필요하며 △첨터 및 행사장 공원을 돌보이게 할 수 있는 공간 활용, △지역문화의 지속적 발굴과 시연 노력의 지속화, △프로그램 인체계에 보강, △인부 프로그램 내용 변경 및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에 대한 평가는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최종 표본 514명을 대상으로 방문객 설문과 현장면접, 축제현장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으며 설문 내용에는 행사내용과 재미 등에 관해 묻는 문화관광측

제 공통 평가항목을 비롯해 반딧불이 신비탐사 등 주요 프로그램 등에 대한 평가, 불편사항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결과를 보면 주방문 집단은 30~40대로 전주/전북, 대전/충남지역에서의 방문이 두드러졌으며 가족들과 동반해 숙박관광객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객들은 축제의 재미와 프로그램, 지역문화, 시설안전에 평균 이상의 만족의사를 표시했으며, 행사·관광에 대한 정보 부족과 먹거리, 주차 등과 관련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수 군수는 “오늘 이 자리가 자족보다는 성찰이 앞서는 도약대가 돼서 반딧불축제를 모두가 인정하는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 군민들을 웃게 하는 소득축제로 당당히 세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크리션**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고원 진안산악회  
063-430-2951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매사냥’

### 진안군, 17일 체험홍보관 준공식·시연행사

진안군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매사냥의 계승보전을 위해 백운면에 매사냥 체험홍보관을 조성하고 오는 17일 매사냥 공개시연 행사와 함께 준공식을 개최한다.

매사냥 체험홍보관은 진안군 백운면 (구)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지난 6월 말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10월 27일 착공하여 오는 17일 개관할 예정이며 주요시설은 매사냥 홍보관, 교육장, 음방 등이 있다.

이번 홍보체험관 준공식과 함께 매년 12월마다 열리는 매사냥 시연행사도 체험관 인근 야산에서 개최 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천년 동안 이어온 매

사냥의 전통이 있는 곳으로, 오늘 날까지 그 전승의 방법이나 사냥법·도구제작 등의 기능전승이 다른 지역보다 우수한 지역이다.

박정오 응사는 매사냥 보유자로서 매사냥과 관련된 전통적 기술·도구 제작기능 등에 있어 숙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관련도구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의 ‘매사냥’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네스코 무형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벨기에, 프랑스, 몽골 등 11개국의 매사냥과 함께 공동으로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완주를 행복하게 만든 10대 뉴스 발표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완주군은 주민과 공무원 등 45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한 해 완주군을 행복하게 만든 10대 뉴스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먼저 올 해 완주군을 모두 행복하게 만든 최고의 뉴스로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선정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CFC : Child Friendly Cities)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군은 유엔아동권리 협약의 아동친화적 가치 실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 농촌형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높은 평가를 받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됐다.

두 번째 뉴스는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이 뽑혔다.

군은 전북 지자체 중 처음으로 지난 5월 제8회 다산목민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군은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목민정신인 ‘율기, 봉공, 애민’을 ‘소통, 변화, 열정’으로 재해석해 ‘교통은 복지다’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교통복지 1번지 완주’로 주목 받았다.

세 번째 뉴스로는 ‘삼례문화에술촌 지역 문화브랜드대상 수상’이 뽑혔다.

이외에 ▲완주군 청렴도 7년 연속 우수 ▲완주 삼봉엘링시티 조성사업 착공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1단계) 분양 완료, 2단계 본격추진 ▲2년 연속 공약이행평가 최우수 선정이 뽑혔다.

▲전북현대 AFC 챔피언스리그와 완주군 축구예가 조성 ▲완주소방서 신설 확정 ▲전주대대 이진 백지화 관철 등의 순으로 완주 10대 뉴스가 선정됐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군민의 자긍심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뉴스를 군민과 함께 선정해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 특별블로그

###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법제처 ‘우수’

무주군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학생 학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복리정책을 자율적으로 법규화 함으로써 사회적 필요성을 충족시킨 한편, 자치입법의 이념에도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로 학자금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행정효율을 높이고 주민행복을 키우는 조례 발굴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1년 간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입법 컨설팅 우수 조례’로 표시·공개되며,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도 포함돼 연내 전국 지자체에 배포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마음 나누기 정신건강 송년회

진안군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는 14일 ‘관심과 사랑으로 정신건강하자’라는 주제로 정신장애우 및 가족, 유관기관, 일반주민 200여명을 초청하여 정신건강 송년회 마음나누기 행사를 강당에서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신건강을 지켜줄 10가지 수칙 낭독, 한 해 동안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활동 동영상 시청, 생명사랑강의, 정신장애우들의 장기자랑 및 특별공연이 이루어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소통으로 잘못된 편견을 없애며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여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일조하는 시간이였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진장소방서, 의무소방대원 PTSD 관리·예방 워크숍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12-13(2일간) 군 북부중요인 의무소방대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PTSD)관리 및 예방을 위한 워크숍을 진행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북부 중 화재·구조·구급 현장출동이 잦은 의무소방원에 대하여 마음사랑병원 정신의학과 이지은 전문의를 초빙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점검했다. 실제로 PTSD 관정을 받은 의무소방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중 2명은 “가끔 현장 장면이 떠오르기도 한다”며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또한 조용주 서장은 ‘나의 병영생활’이란 주제로 전환복무중인 의무소방원들에게 군생활의 노하우 전달과 격려하는 강의를 하고 애로사항 청취 후 해결을 위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무진장소방서 관계자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PTSD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정작 옆에서 소방공무원을 보조해주는 의무소방원에 대한 PTSD는 신경 쓰지 못했다.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통해 의무소방원의 심신관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한국마사회 장수목장(목장장 박상대)은 연말을 맞아 14일 장수군청에서 지역의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연말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장수목장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목장 인근 지역의 불우한 이웃을 위한 성금을 기탁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저소득층, 생계곤란 취약계층 등 불우한 이웃에 기부금(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행사는 장수목장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전북지회에 기부금을 기탁하고 장수군청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대상자를 선정,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으로 성금이 전달된다. /장수=고관호 기자